

SUNHAK PEACE PRIZE



교사 가이드 STOP! FGM!

도입 1

- 와리스 디리의 책 ‘사막의 꽃’ 중 일부분을 교사가 읽어준 뒤 질문을 던지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 과정에서 여성할례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공유하며, 할례의 고통에 대한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 무딘 칼날에 쓱쓱쓱 살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남의 얘길 하는 듯하다.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허벅지의 살이나 팔을 자르는 듯한 느낌과 비슷하다. 잘려나가는 부분이 온 몸을 통틀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략)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안대가 벗겨지자 죽음의 여인 앞에 쌓인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들이 보였다. 가시로 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은 다음 그 구멍을 희고 질긴 실로 엮어 꿰맸다. 다리에는 느낌이 없었다. 다리 사이의 고통은 죽고 싶을 정도로 심했다. 나는 고통을 뒤로 하고 공중으로 두둥실 떠오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허공에 떠서 밑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여인이 내 몸을 꿰매는 동안 불쌍한 우리 엄마는 날 두 팔로 안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일까요?
- 내가 만약 이야기 속 ‘나’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 여성할례(FGM)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막의 꽃




-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일까요?
- 내가 만약 이야기 속 ‘나’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해 알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 여성할례(FGM)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입 2

- 아프리카 국가 여성들의 할례 경험 비율을 나타낸 지도를 보여준 후,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할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도 속 나라들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지도에 적힌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지도 속 나라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들어본 적 있는 나라인가요?

여성할례에 관한 어떤 지도



- 지도 속 나라들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지도에 적힌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지도 속 나라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들어본 적 있는 나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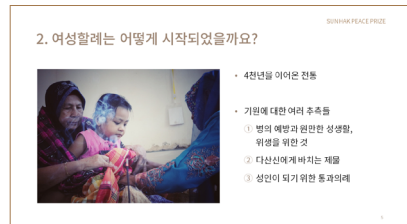
1. 여성할레란 무엇일까요?

- **여성성기훼손:** 여성할레란 의료적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 또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여성 생식기의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공식 명칭은 ‘여성성기훼손(Female Genital Mutilation)’으로, 이니셜인 ‘FGM’으로 통용된다
- **비위생적이며 심한 통증과 출혈을 동반하는 다양한 시술:** 여성 생식기의 음핵 표피만을 제거하는 시술 / 표피와 음핵, 소음순, 대음순 등을 모두 제거하는 시술 / 생식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한 후 좁은 틈만 남긴 채 봉합하는 시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성할레 시술은 심한 통증과 출혈을 동반한다.
- “할레는 건강, 안보, 신체적 안정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고문에 가까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다.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세계보건기구(WHO)



2. 여성할레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4천년간 이어온 전통:** 여성할레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에서 수천 년간 대를 이어 전승되어온 것이라 본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고 몇 가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추측:** ① 병의 예방, 결혼 후의 원만한 성생활, 위생을 위해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② 다산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③ 부족 혹은 국가의 일원이 되거나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시작하였다.
- + **이집트 나일강 기원설:** 이집트는 나일강변에서 자연신에게 제물을 드리곤 했는데 다산의 신에게 여성의 생식기를 잘라 바치며 땅에 묻거나 나일강에 던졌다. 그래서 여성할레는 수확 철이나 나일강 홍수 때 행해졌고, 여성들은 매달 나일 강을 찾았다는 설이 있다.



3. 여성할레는 왜 하는 걸까요?

-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 일부 사회에서는 여성 생식기의 음핵을 여성 신체에 남아있는 남성의 흔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성할레 의식을 통해 이를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난다고 믿는다.
- **혼전순결을 위한 장치:** 일부 사회에서는 소녀들이 여성할레를 받게 되면 혼전순결을 지킬 확률이 더 높아지고, 결혼 후에도 정숙한 여인으로서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할레 시술을 받지 않은 여성의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정숙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 **일부다처제 강화 수단:** 여성할례는 특히 일부다처제가 보편적인 아프리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주로 행해진다. 일부다처제 아래에서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한꺼번에 챙기기가 쉽지 않기에 아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성할례를 시행한다는 분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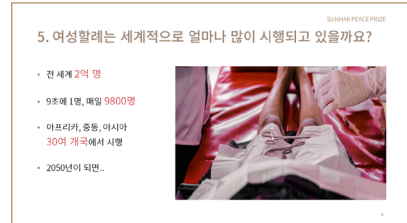
4. 여성할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여성할례 경험담 by 이집트 여성 신문기자 ‘라바스 아잠’**
- 중학생이던 13살 때 받은 수술의 고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카이로 북서쪽 메노피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던 어느 날 숙모에게서 “결혼식에 가니 샤워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살 밑의 여동생과 함께 차에 태워졌다. 도착한 곳은 민간진료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술대와 책상밖에 없는 작은 방으로 안내됐다. 수술대 위에서 숙부와 숙모 등 4명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다. 30분 정도 울며 반항했지만 그뿐, 여동생과 사촌 2명 등 4명이 수술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축하한다”며 키스를 해 줬다.
- **시술자는 주로 마을의 산파:** 도시지역에서는 병원에서 전문의가 시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을의 나이 많은 산파가 시술을 담당한다.
- **시술 대상은 4~15세의 소녀들:** 소녀들은 할례가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통과의례라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지만, 대개는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시술을 받게 된다.
- **도구는 주로 면도칼, 가위, 깨진 유리 조각, 날카로운 돌:** 일반적으로 여성할례는 전문 의료장비도 없고, 소독도 되지 않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마취도 없이 이루어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해 환부를 소독하는 민간요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마취 없이 시술하기 때문에 소녀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의식은 대부분 동트기 직전에 거행된다.
- **시술 이후:** 시술 이후 소녀들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에, 시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할례가 시행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자체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 인식하기 때문에, 할례 의식을 위해 대대적인 마을 축제를 벌이고 할례를 받은 소녀들에게 화려한 옷과 선물을 안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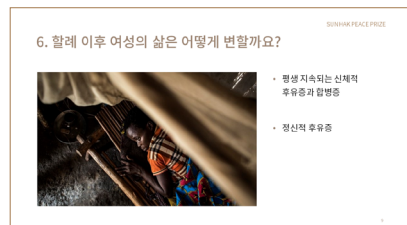
5. 여성할례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 **2억 명:**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의 여성들이 할례를 경험했다(유엔 2019년 자료).
- **9초에 1명, 매일 9800명:** 아직도 매년 3600만 명이 할례를 당하고 있다(유엔 2019년 자료).
-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30여 개국에서 시행:**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30여 개국에서 여성할례가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등으로 이주한 여성할례 문화권 민족들이 그들 전통에 따라 할례를 시행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주 국가로까지 여성할례가 유입되었다. 국가별 비율은 소말리아 98%, 기니 97%, 시에라리온 90%, 이집트 87%, 에리트레아 83%, 에티오피아 74%, 나이지리아 25%, 예멘 19%, 이라크 8%의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한다(유니세프 2013년 자료).
- + **소말리아 여성의 98%:** 2016년 유니세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9세 여성 중 할례 경험자가 98%에 달했으며, 이보다 어린 소녀들에게도 시술이 빈번히 자행된다고 드러났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할례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소말리아 보수단체나 종교단체들의 비호 아래 불법 할례 시술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할례 시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사고 등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여성 인구의 1/3이 여성할례를 실시하고 있는 30개국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는 5억 명 이상의 여성이 할례 시행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여성할례 비율이 높은 소말리아의 경우, 2050년 여성 인구가 2017년 대비 2배 증가할 예정이라 피해 여성의 숫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6. 할례 이후 여성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 **평생 지속되는 신체적 후유증과 합병증:** 여성할례 시술은 심한 통증과 출혈을 동반한다. 대부분의 시술은 마취와 소독 과정이 생략된 채 비위생적으로 진행되어 이후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 ①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
 - ② 상처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며 염증 유발
 - ③ 만성 빈혈 유발
 - ④ 소변을 볼 때 30분 이상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
 - ⑤ 월경 시 피가 외부로 잘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전신 감염의 위험
 - ⑥ 소독 부족으로 인한 패혈증, 파상풍 발병의 위험
 - ⑦ 시술 이후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한 각종 세균,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 ⑧ 성행위 시의 고통과 불임 문제
 - ⑨ 출산 시 산모와 아이의 사망 위험 증가
- **정신적 후유증:** 마취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러한 고통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어 수치심, 상실감, 걱정, 낙담 등의 정서 불안 등의 문제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한다.

7. 할례를 피해 난민이 되는 여성들

- **할례를 피해 도망치는 여성들:** 여성할례가 갖는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여성할례를 시행하는 국가 출신으로 유럽에서 난민신청을 한 여성 및 여아는 2만 5855명으로, 그중 71%(1만 8500명)가 여성할례 때문에 본국을 떠났다(UNHCR 2014년 자료). 주요 출신국은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기니, 에티오피아 등으로, 이들 국가들은 높은 여성할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할례는 난민 신청 사유가 될까?:**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할례는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이므로 난민 조건에 해당하며, 이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할례를 피해 고향을 떠난 여성들이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난민 제도 관련자들은 ‘할례는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십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은 할례를 피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 여성할례 철폐를 위한 노력: 인식 개선

- **할례는 아름다운 전통?:** 수천 년에 걸쳐 여성할례가 자행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할례의 부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여성할례가 소녀들의 성 정체성을 바로잡는 아름다운 전통이며,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여성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할례는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적 행위다’라는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의 개선 없이는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기 힘들다.
- **공동체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 할례 시행국의 공동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이 사악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할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할례의 폐해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릇된 관습을 중단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8. 여성할례 철폐를 위한 노력: 인권단체

- **1990년대에야 여성할례의 폭력성이 세계에 알려짐:** 여성할례는 1997년 세계적인 패션모델인 와리스 디리(소말리아 출신으로 할례 경험자)가 그 잔인한 폭력성을 서구사회에 폭로하기 전까지 그저 아프리카의 전통으로 여겨졌다. 와리스 디리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유엔의 여성할례 철폐 특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여성할례를 전 세계를 통틀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국제 문제로 부각시켰다.
- **전 세계적인 할례 철폐 캠페인:** 세계적 언론들의 취재와 할례 경험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계 많은 이들이 여성할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니세프, 사막의꽃재단, 토스탄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할례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여성할례가 지켜야 할 전통이 아니라 반인권적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할례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데 앞장섰다.



8. 여성할례 철폐를 위한 노력: 국제사회

- **2월 6일은 여성할례 철폐의 날:** 2003년 유엔은 2월 6일을 ‘세계 여성할례 철폐의 날’로 지정하였다.
 - **아프리카연합, 모든 형태의 여성할례를 법적으로 금지:** 2003년 7월 아프리카 연합 국가들의 정부 대표들은 모잠비크 마푸토에 모여 인권에 관한 ‘마푸토 의정서’를 채택했는데, 제5항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할례를 법적으로 금한다고 명시했다.
 -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5.3:**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 5번째 목표인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조항 하의 세 번째 세부 목표는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3은 여성할례를 2030년까지 철폐한다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 + 그러나 여전히 성행 중: 2000년대 이후 많은 국가가 여성할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할례 철폐 선언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할례는 철폐되지 못한 실정이고, 여성할례로 인한 사망 사고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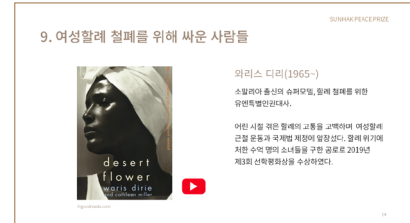


9. 여성할레 철폐를 위해 싸운 사람들

- 와리스 디리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US68O-sePk>

- 와리스 디리: 소말리아 출신의 슈퍼모델이자 전 여성할레 철폐를 위한 유엔특별인권대사. 여성의 98%가 여성할레의 고통을 겪는 고국 소말리아를 떠나 영국에 정착하여 지내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모델이 되었다. 슈퍼모델로서 광고 및 영화에 출연하며 명성을 쌓던 중 1997년 잡지 ‘마리끌레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여성할레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유엔의 여성할레 철폐 특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수천 년간 지속된 여성할레의 폭력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법 제정에 앞장서 할레 위기에 처한 수 억 명의 어린 소녀들을 구했다. 이 공로로 2019년 제3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내가 여성할레 철폐 운동을 벌인 후 소말리아에선 소녀 98%가 당했던 여성할레가 8%로, 아프리카 전체에선 70%에서 7%로 줄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이 악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9. 여성할레 철폐를 위해 싸운 사람들

- 물리 멜칭: 미국 출신의 인권 운동가. 1974년부터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살며 비정부기구인 ‘토스탄’을 조직하여 할레 철폐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세네갈의 많은 마을 공동체가 여성할레의 관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었다. 그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삼 은자이 마을 주민 300명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뿐이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거의 3천 500개에 이르는 세네갈 마을이 여성할레 관행의 종식을 선언했다. 감비아 마을 58개, 기니 비사우 43개 마을, 기니 332개 마을, 말리 7개 마을, 그리고 소말리아 34개의 마을도 선언에 동참했다.”
- 여성할레 위기에 처한 수백만의 아프리카 소녀들을 구한 인권운동가 물리 멜칭의 여정을 담은 서적, ‘밤이 제아무리 길어도’ 중에서



10. 여성할례 철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며 공존하는 지구촌 세상에서 여성할례는 세계 공동의 문제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잔혹한 여성할례를 철폐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 **할례 철폐를 위해 행동하기:** 여성할례 실태와 그 피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를 통해 할례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활동하기 등을 할 수 있다.

